

# 삼성전자, 호찌민에 브랜드 체험공간 열어

‘삼성쇼케이스’ 오픈... 문화콘텐츠 공유도

삼성전자가 동남아시아에도 브랜드 체험 공간을 오픈했다.

삼성전자는 15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에 ‘삼성 쇼케이스’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 쇼케이스는 호찌민 1군 비텍스코 파이낸셜 타워에 1100㎡로 마련됐다. 미국 뉴욕 ‘삼성837’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자일 쇼케이스’에 이은 3번째다.

내부는 젊은 세대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 콘셉트로, 제품 전시·체험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공유까지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존’과 ‘혁신의 리빙룸’ ‘스마트 키친’ 등 18개 공간으로 분할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부터 QLED TV, 주방, VR까지 체험 가능하다. 대형 키즈존도 운



삼성전자는 베트남 호찌민에 체험 공간 ‘삼성 쇼케이스’를 오픈했다.

/삼성전자

영해 가족들도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삼성 쇼케이스에서 현지 문화를 반영한 체험 행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장 서경욱 상무는 “베트남 호찌민의 삼성 쇼케이스는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미래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시아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LG전자 iF디자인 어워드 16개상 휩쓸어

LG전자가 올해 iF 디자인 어워드를 휩쓸었다.

LG전자는 최근 마무리된 ‘iF 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금상 1개와 본상 15개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대회다.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이 주관한다.

금상은 LG 올레드 TV 몫이었다. 스탠드가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으로 몰입감을 높였고, 화면 아래 투명 글래스에 스탠드를 뒤로 놓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도 호평받았다. 지난해 레드닷 어워드 제품 디자인 부문 최고상과 IDEA 동상에 이은 쾌거다.

다른 올레드 TV도 본상 주인공이었다. 롤러블 올레드 TV(65R9)와 8K 올레드 TV(88Z9), LG 올레드TV(65C9)과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55EW5F)다.

그 밖에 LG전자는 다양한 제품으로 iF 디자



LG전자는 LG 올레드 TV 등으로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과 본상 16개를 받았다.

/LG전자

인 어워드 본상을 따냈다. LG 오브제 오디오와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2종, LG 사운드바와 프로젝터 LG 시네빔 레이저 4K 등이다.

/김재용 기자

# ‘정준영 몰카’ 2차 가해 멈춰야



기지수첩

김민서  
(유통&라이프부)

“정준영 동영상 봤어?”

최근 가수 정준영의 ‘몰카 카메라(이하 몰카)’ 파문 이후 기자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다. 비단 동영상의 유무만이 아니다. 근거없는 소문을 바탕으로 영상 속 인물을 추측·특정해 진위여부를 묻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정준영과 지인들의 카카오톡 내 대화는 충격적이다. ‘몰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이는 없고, 모두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인다. 여성에 대한 폄비는 물론, 서로 영상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방 밖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준영의 주변 연예인, 특히 여성 연예인들이 애꿎게 도마 위에 오르거나 하면, 몇몇 연예인은 악성 지라시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일명 ‘정준영 동영상’이 퍼졌다. 정준영과 여성 연예인의 성관

계 영상이라는 이름 아래 조작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다.

2차 가해가 이토록 만연한 이유는 일부 대중들이 이번 파문을 하나의 ‘오락거리’ 정도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지라시와 영상을 주고 받는 행위 속에서 범죄는 ‘일탈’로 희석되고, 피해자들은 지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파문은 단순한 연예인 성추문이 아니다. ‘몰카’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음에도 정준영과 지인들이 반성 없이 기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을 떠올려야 한다.

정준영과 지인들의 대화방에서 ‘몰카’ 영상은 일종의 전리품이었다. ‘몰카’를 보내는 것을 마치 오락거리마냥 다루는다면, 영상을 보내는 행위로 영웅 심리를 표출하기도 했다. “애는 신고 못한다”는 협박성 조롱도 흘러나왔다.

정준영 파문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남성 연대의 지리멸렬한 표본이다.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도구화하면서도 죄의식조차 없다. 지금껏 사회가 이러한 행태를 일탈로 간주해온 데 따른 결과다.

누군가에겐 가슴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 정준영 파문의 본질을 봐야 할 때다.

/min0812@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8일 (음 2월 12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버람 잘 날이 없다. 60년생 내가 싫어한다고 남들도 다 싫어하지는 않는다. 72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하니 깊이 생각하고 행동. 84년생 집이나 말이나 새 식구를 데리고 오는 날.

**소** 49년생 인생의 팔목상대(肘目相對)는 자식으로 이루어진다. 61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조금 양보. 73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85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 신경 쓰자.

**호랑이** 50년생 자손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니 흐뭇. 62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일을 잘 풀리게 한다. 74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스스로 노력. 86년생 친구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토끼** 51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해야 한다. 63년생 돼지를 사기 전에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어라. 75년생 의욕이 지나치게 강하면 욕심쟁이가 되어 화근이다. 87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일이 잘 마무리.

**말** 52년생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64년생 허릿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다 낭패 본다. 76년생 성공이 눈앞에 왔으니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터. 88년생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결혼은 어렵다.

**뱀** 53년생 건강이 염려되니 종합검진을 받아보라. 65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 이득이 많은 날. 77년생 머리만 민고 있다가는 일을 그만둔다. 89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휴식해야.

**말** 54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오는 법이다. 66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쁜 마음으로. 78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90년생 지나간 인연이 또 다시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양** 55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67년생 힘든 길이라도 가다 보면 결과가 좋다. 79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따져라. 91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니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게 된다.

**원숭이** 56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68년생 희망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80년생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92년생 가지 못한 길에 미련을 두지 마라.

**닭** 57년생 자신이 옳다 해도 누가 알아주라. 69년생 하늘에서 보석비가 쏟아져도 만족을 모르니 안타깝다. 81년생 배우자 외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야 도리. 93년생 과거의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개** 58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70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도 들어온다. 82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보자. 94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없다.

**돼지** 59년생 우물거에서 송송 찾지 말고 순서대로 움직여라. 71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지자. 83년생 망설임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 95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든 참여해야.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9		5		
			8		6			
4			3	5	1			6
	4	9				1	8	
6		2				4		5
	5	8				6	9	
8			5	3	9			1
			2		4			
		1		7		2		

			8					3
		5	2	4			3	1
1								4
7	6				9			8
			6		1			
8	2			7				5
6								9
		9	3	7		2	8	1
		4					5	

스도쿠 정답

4	5	2	8	1	9	6	7	3
6	8	7	1	3	9	2	4	5
1	9	1	6	5	8	3	7	2
5	6	9	7	4	1	8	2	3
3	1	8	5	9	2	7	6	4
9	2	6	1	5	8	4	3	7
8	7	5	9	2	8	6	1	3
1	3	4	2	7	6	5	8	9
2	8	3	4	1	6	9	5	7
7	4	8	3	9	1	2	5	6
5	9	6	2	1	8	3	7	4

문제 제공= 보너스

## 김상회의四季 기도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어느 순간 어떤 기운과 방향에 이끌려 완만히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별 어려워 보이지 않을 일도 이상하게 장애가 생겨 실패와 차질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도대체 신명이란 있는 것인가? 원래 무속신앙이라 불리는 샤머니즘이 인간의 자연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과 숭앙(崇仰)에서 출발했음을 볼 때, 미물이 라 할지라도 만물에 영(靈)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정령신앙의 요소가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다만 그 영이 참된 영이냐 아니냐는 차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연결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이나 무릇 모든 존재들에게서는 일종의 파장, 다른 말로는 에너지라 할 수 있는 열파장 또는 빛 파장이 분출되고 있음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지 이미 오래다. 이 정신 에너지를 마음에너지로 모으는 힘으로서 기도의 가피는 열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열력은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을 모두 아우르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이란 것은 바로 존재의 정신에너지인 것이니 마음이 선한 차원과 세계의 신명(神命)으로 전해져 그 에너지가 형상화되면 흔히 말하는 가피 또는 축복의 형태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이 과정을 ‘기도’라고 이름 지었을 뿐인 것이다. 어이됐거나 우리 인간의 기도가 간절하게 원하는 바가 차원이 높을수록 더 높은 천상의 신명이 감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한 것 역시 마음이 간절해지면 물질이 주를 이루는 현상의 차원을 넘어서 육계 천상의 신명들에게 전달이 되어 감응하여 반응한다는 이치를 나타낸 뜻인 것이다. 진실 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보시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16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64호